

# 가교 架橋 Bridge

www.dropin.or.kr

2015.3  
Vol.8



# Contents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센터 소식지 | 가교(架橋) Bridge | 2015. 3 Vol. 8



- 03** 인사말
- 04**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 05** 2014년 거리 노숙 생활실태 및 욕구 설문조사 결과
- 11** 그라운드에서 희망을 쏘다
- 13** 새희망 고용지원센터의 한 해
- 14** 이웃리치 상담을 진행하며
- 15** 브릿지센터 들여다보기
- 18** 브릿지종합지원센터 2014년 실적보고
- 19**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 19** 콩으로 후원해 주세요
- 20** 후원안내

기회는 흔히 고생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보지 못한다

- 앤 랜더스



발행처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주소 120-030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합동 13번지)  
전화 02)363-9199, 9195 팩스 02)363-9198 발행인 이호영 편집인 강남영  
발행일 2015년 3월 디자인·제작 에디아

##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길...



관장 이호영

안녕하십니까?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관장 이호영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 시설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후원 덕분에 힘든 시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청양의 해인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양은 무리를 지어 화합하고 융합하면서 진취적인 기상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올이년에는 그러한 청양의 기운으로 저희 기관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 지역 협의체와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화합하여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우리 거리 노숙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방향을 찾지 못하여 헤매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리 노숙인의 든든한 친구로, 가족으로, 따뜻한 손을 먼저 선뜻 내미는 브릿지 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상징인 양의 해인만큼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5년도에도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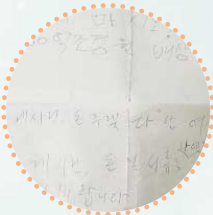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장  
이 호 영 배상

#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정신보건과 과장 김연숙



♥♡ 오늘도 깔끔하게 다듬은 모습으로 서선생님은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 이제 6개월 넘게 금주 상태를 유지하시며 사회 재적응을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얼마 전부터는 공공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취업이 되어 100만원 넘는 임금을 받게 되신 것도 서선생님을 신나게 하는 일이다. 정신과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으시면서 A.A.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 순간 한 잔의 술에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이 늘 걱정되기도 한다. 살 이름 판을 걷는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걸음 내딛으며 자신과의 사투를 감내해 나가시는 서선생님이 존경스럽다.



♥♡ 노숙인 정신건강업무를 맡은 지 3개월째,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노숙인을 대하며 노숙인들의 이야기 속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며 흠칫 놀라기도 한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노숙하는 나그네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 추운 겨울 비닐을 온 몸에 둘러 기괴한 모습으로 혼잣말을 하면서 쓰레기통 뒤지며 다니는 노숙인, 집에 가고 싶지만 집에 '남의 애기'들이 많이 와 있어서' 못 간다고 망상에 사로 잡혀 노숙하시는 조현병 환자,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젊은 지적장애 청년의 노숙, 당뇨병으로 양쪽 발가락 전체를 절단하고도 여전히 음주를 하고 계시는 노숙인, '9000천억 조경'의 돈을 받을게 있다는 과대 망상 노숙인, 정작 본인의 위생 상태는 좋지 않으면서도 제공되는 주거지나 음식물은 걱정돼서 온갖 서비스를 거절하는 강박증 노숙인. 성적인 피해망상에 사로 잡혀 주변인들에게 무차별 공격성을 보이는 노숙인, 술에 취해 센터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도 담당자에게 '사랑한다 너 밖에 없다' 라고 사랑 고백하는 알코올의 존 노숙인 등등 참으로 노숙의 원인과 증상은 다양하다.



♥♡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 미어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여러차례다.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어느 정도는 병들어 산다. 노숙도 치료가 어려운 만성병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여기서(here and now) 삶을 치유하고 성장과 존재의 고귀함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길 소망해 본다. 우리안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롭게 밭을 가꿔나간다면 사랑과 희망의 싹이 파릇파릇 돌아나지 않을까.

# 2014년 거리노숙 생활실태 및 욕구 설문 조사 결과

## 1. 조사목적

거리 노숙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욕구 및 인식 조사를 통해 동절기를 맞이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방향을 설정하여 동절기 노숙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설문조사 목적



## 2. 조사개요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인원(명)	응답률(%)
야간 아웃리치 활동 지역	2014. 11. 25. ~ 12. 03.	설문지	100	100

## 3. 조사내용 및 결과

응답 연령은 <표-2>에 결과처럼 100명 중 50대가 38명, 4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60대가 15명, 30대가 13명, 70대 이상이 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성별>

(단위 : 명)

남성	여성
9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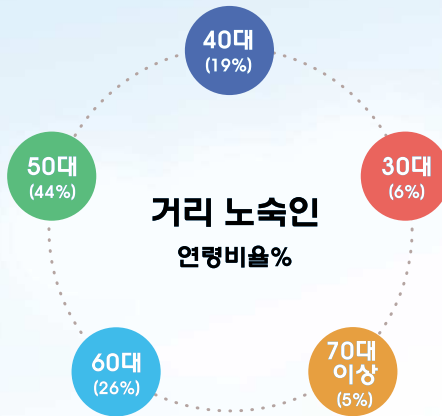
응답 연령은 <표-2>에 결과처럼 100명 중 50대가 38명, 4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60대가 15명, 30대가 13명, 70대 이상이 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연령>

(단위 : 명)

30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6	19	44	26	5

〈표-2 연령〉



응답 노숙인들의 연령 분포는 40대~50대가 전체의 1/2을 차지하는 비율을 보인다. 조사인원중 40~50대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근로가 왕성한 20대때 취업을 한 후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유지하다 실직, 사업실패,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지지를 기반을 상실한 거리 노숙인인들로서 〈표-2〉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 60대 이상의 노숙인도 26% 나 차지하며 장년층의 사회적 실패와 불안정한 근로형태가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부재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여 거리생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 노숙기간〉

〈단위 : 명〉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6	19	44	26	5

노숙을 시작한 기간은 5년이상에서 10년미만이라고 답한 노숙인이 100명 중 45명으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고 불안정한 주거지와 소득으로 인해 노숙 탈피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거리 생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5년 미만 초기 노숙인 역시 29명이나 달하는데 초기노숙인의 경우는 노숙인 기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로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준비 없이 노숙의 길로 들어서 노숙상황마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 대책으로 인한 근본적인 노숙 탈피가 어려워졌다고 답하였다.

〈표-4 현 노숙 장소〉

〈단위 : 명(%)〉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6	19	44	26	5

〈표-4〉에서 보듯이 현재 주된 노숙장소로는 을지로입구가 38명, 시청·시의회 종각이 각 각 13명, 10명 순으로 조사됐다. 몇몇 지역에 노숙장소가 편중된 까닭은 전반적인 상담 및 급식 등 거리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서비스 방향 설정에서도 이런 점을 적극반영하여 서비스의 다양화 및 분산화를 통한 양질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표-5 노숙인 쉼터이용〉

〈단위 : 명(%)〉

있다	없다
37(37)	63(63)

〈표-6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및 퇴소사유〉

〈단위 : 명(%)〉

시설운영부적용	환경에대한 불만족	부정적인식 및 의존거부	질환등 입소불가	기타
35(35)	21(21)	26(26)	3(3)	15(15)



〈표-5〉에 따르면 노숙인 쉼터를 이용해본 경험자는 37명,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대상자는 63명으로 조사되었다. 또 〈표-6〉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및 퇴소사유로는 시설운영부적용이 35명, 부정적 인식 및 의존거부 26명, 환경에 대한 불만족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5명이 응답했고 사유로는 잠은 거리에서 자고 식사는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니 불편함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표-7 쉼터 이용시 고려될 사항〉

〈단위 : 명(%)〉

독립된 공간 및 시설환경	취업지원 서비스	식사제공 확대	교통편의 및 저축확대	기타
58(58)	11(11)	7(7)	8(8)	16(16)

향후 쉼터 이용시 고려 될 사항으로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환경인 전체 60%가량을 차지 했고 그 뒤 취업서비스, 교통편의 및 저축확대, 식사제공 확대등등이 따랐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숙식이 가능한 개인 공간의 확보이고 일차 리 순이었는데 〈표-5, 6〉를 바탕으로 보면 쉼터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거리노숙인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취업 연계 및 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거리노숙 탈피를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 할 수도 있다.

〈표-8 고정적인 근로활동〉

〈단위 : 명(%)〉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12(12)	88(88)

〈표-9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명(%)〉

일자리 정보 부족	주민등록 말소	건강상태	근로이지 부족	기타
22(22)	11(11)	21(21)	10(10)	36(36)

〈표-10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단위 : 명(%)〉

공공일자리	건설일용직	생산직	경비, 청소직	기타
28(28)	21(21)	8(8)	15(15)	28(28)

〈표-8〉을 보면 현재 고정적인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12명에 불과했고 〈표-9〉에 따르면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타가 36명, 일자리정보부족 22명, 건강상태 21명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이 근로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뽑혔다. 〈표-10〉에서 일자리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였는데 공공일자리 28명 기타 28명 및 건설 일용직 21명 순으로 선호하였다.

〈표-11 서울시 지원정책 인식 여부〉

〈단위 : 명(%)〉

서울시 일자리	특별자활 사업	임시주거 지원	응급 구호방	종합센터/ 쉼터	없다	기타	무응답
28(22)	13(10)	22(17)	14(11)	13(10)	15(11)	10(8)	15(11)

거리 노숙 탈피를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 지원정책 중 알고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일자리(28명)과 임시주거지원(22명)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응급구호 14명, 특별자활 13명 순이었다. 무응답도 15명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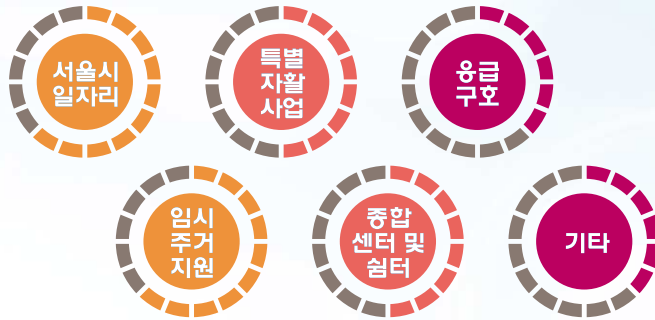
있다	없다
46(46)	54(54)

〈단위 : 명(%)〉

서울시 일자리	특별자활 사업	임시주거 지원	응급 구호방	종합센터/ 쉼터
9(20)	8(18)	16(35)	5(10)	8(17)



〈표-11 서울시 지원정책 인식 여부〉



서울시 지원 정책 이용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해 본적이 있다 라고 답한 노숙인이 100명 중 46명이 응답해 실제 거리 노숙인 두 명중 한명은 이용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인원 46명 중 임시주거지원이 26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다. 서울시일자리지원이 22명, 응급구호방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시주거지원사업은 거리노숙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실제 이용 경험으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11-2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

〈단위 : 명(%)〉

있다	없다
57(57)	43(43)

〈단위 : 명(%)〉

서울시 일자리	특별자활 사업	임시주거 지원	응급 구호방	종합센터/쉼터
11(11)	17(17)	36(36)	12(12)	24(24)

또 〈표-11-2〉에서 보듯이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노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등록 복원, 생활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별자활사업이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24명이 주거지원 다음으로 실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없다 라고 답한 노숙인의 대부분은 지원 정책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및 서비스가 지수가 적다고 느껴 유지해 오던 노숙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패턴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12 거리노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서울시일자리	특별자활사업	임시주거	응급구호방 지원사업	없다	종합지원센터 및 기타
12(12)	15(15)	44(44)	5(5)	4(4)	20(20)

〈표-12〉에서도 거리노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임시주거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지원센터 20% 및 특별자활사업 15%를 거리노숙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유용한 서비스로 뽑았다.

〈표-13 현재 가장 필요한 노숙인정책〉

〈단위 : 명(%)〉

주거지원	취업알선	신용회복	의료지원	없다	기타
52(52)	20(20)	6(6)	4(4)	3(3)	8(8)

현재 노숙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거 지원 52명, 없다고 답한 의견이 3명으로 대조적으로 조사됐고 그 뒤론 취업알선 20명, 기타 8명, 의료지원 4명으로 나타났다. 노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주거지원과 취업알선이 중요한 요소로 꼽혔는데 이는 안정적 일자리는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고 주거유지 또한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143 주거 지원 시 희망 유형〉

〈단위 : 명(%)〉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상관없음	무응답	기타
17(17)	52(52)	10(10)	10(10)	2(2)	9(9)

주거 지원 시 희망하는 주거 형태로는 고시원(52명)이 절반 이상이었고 쪽방 17명, 여인숙 10명, 상관없음 10명이 그 뒤를 이었다. 고시원이 다른 주거형태보다 선호도에서 앞선 수치로 나타난 것은 개인특성에 따른 공간이용도가 다른 주거형태보다 높고 개인의 독립된 공간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에 노숙인 역시 비슷한 욕구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 4. 결론

본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하면 거리노숙인의 노숙탈피 에 주요 영향요인이 사회적 지지인 측면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실증적 지원정책확립과 정확한 서비스전달체계가 중요하다. 거리노숙인 대부분이 노숙탈피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거지원을 뽑았다.

노숙인에 대한 주거 정책은 여전히 잔여적 성격을 지니며 제한적 서비스로 국한되어 있다. 대부분 기관이 쉼터를 이용한 시설보호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취약한 상태이다. 노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주거지 미확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의 활용이 요긴하다. 주거취약성의 연속선상에 놓인 거리노숙인에게 임시주거지원사업은노숙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천,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등록 등 필요한 공적자원을 연계해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노숙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기존의 노숙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아닌 쉼터위주의 정책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노숙인 개별대상자의 유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복귀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노숙인 문제의 만성화 및 노숙 탈피를 위해선 가장 기본적 단계라 할 수 있는 주거지 확보와 일자리의 연계 및 지속적인 근로유지가 무엇보다 선결 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본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 노숙인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탈피의지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복지서비스의 실천적, 정책적 연결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전달 체계의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그라운드에서 희망을 쏘다

생활지원과 과장 권오현

브릿지 축구단을 맡아 진행한지 벌써 햇수로만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브릿지축구단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축구라는 하나의 운동으로 함께 뛰고 부딪치고 또 때로는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희망을 찾는 분들을 볼 수 있다.

처음 축구단 활동을 진행했을 때 참여자 분들 대부분이 장기노숙과 음주로 의욕상실과 박탈감 등으로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내면의 열정을 다시금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하지만 축구라는 단체운동을 통해 서로 함께 땀 흘리며 사회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기르고 박탈감에 잊고 지냈던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찾아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내가 걱정했던 부분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 힘에 겨워 5분도 채 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40여분을 뛰어도 거뜰하다”고 자랑할 정도로 모두들 체력이 좋아졌다. 축구팀 단원들이 한 주 한 주 운동을 하며, 자신들의 몸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도 큰 수확이고 공을 차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체력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차츰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축구라는 운동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진행해 오면서 느낄 수 있었다.



제2회 시장배 노숙인축구대회 참가(준우승)



제3회 서울시 시설배 친선축구대회 참가



인천코레인 기관봉사단 정기적인 친선게임



제5회 서울시 시설배 예선참가



프로그램 진행



제6회 서울시 시설배 친선축구대회

앞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의 다각화를 통해 지역사회 동호회 및 대회 활동들을 통해 지역주민과 어울릴 기회도 마련하고 개인의 자존감 회복 및 지역사회와의 융화 등을 통해 그라운드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느덧 우리 축구단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다른 노숙인 상담보호 센터나 쉼터에서 '브릿지 자활축구단'을 벤치마킹한 축구단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축구단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리그도 형성해 경기도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노숙인 월드컵'에도 도전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우리 인생도 축구와 비슷해 살다 보면 '백패스'를 할 때가 있지만 '자살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숙인들이 축구를 통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데 브릿지의 역할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새희망 고용지원센터의 한 해

직업상담사 임우식

새희망 고용지원센터에 처음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은 “좋은 일자리가 없나요?” 이다. 다소 어색하고 겸연쩍은 자세로 어떤 이는 굳은 목소리로, 다른 이는 들리지도 않을 만큼 나지막한 소리로 엉거주춤한 자세와 더불어 센터를 방문에 던지는 매우 흔한 센터 이용자들의 질문인데, 이는 상담자들에게 익숙한 질문이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는 난감한 질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의 수는 11,440개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운영하는 워크넷 등에도 많은 구인정보가 존재한다. 그러나 선택의 폭은 현실에서 그리 넓게 느껴지지 않는다. 취업을 위해서 고용 시장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적성, 흥미, 경력, 자격, 나이, 지역, 급여 및 처우, 기숙사 및 교통편의 제공유무 등 그러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당센터 이용자들의 경우에 주가가 없거나 열악하고, 치약, 칫솔 등 생필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2014년 당센터에 271명이 구직신청을 하여 총 119명(상용 69명, 일용 50명)이 취업을 하였다. 구직을 신청한 사람 중에는 신청 후 연락이 두절된 사람도 있고, 알콜/도박 문제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이용자도 있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인해 급여압류를 두려워하여 취업을 포기한 이용자들도 있다. 알선을 통해 면접일정이 정해진 경우에도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사라진 이용자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신용회복/단도박/알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말소된 주민등록의 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면접교통비 등을 지원을 통해 더불어 동행면접을 통해 원활한 취업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도 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내의 상담지원과, 생활지원과, 정신보건과 등과 협력하여 이용자들이 처한 기본적인 복지적 문제해결

을 통해, 취업의 걸림돌을 우선 제거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용자들의 경우 우유부단한 성격을 소유한 경우가 많다.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취업을 위해 현실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구직의욕, 동기, 목표 등도 거의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취업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급기야 면접일정도 불참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처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용자들에게 우선 취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 왔고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요청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무엇을 해야할 지를 특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이어서 취업알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의 영위는 생계수단만이 아닌, 자아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또한 현실을 직감하게 해주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삶의 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취업의 현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취업지원실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취업을 위해 먼저 준비해야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는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해 줄 수 없는 이용자 본인의 숙제이다. 이러한 자신의 기본자세가 확립된다면, 여타의 문제들은 당센터 내의 상담자들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어려움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에도 많은 구직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당 센터를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



# 아웃리치(Outreach) 상담을 진행하며

## 기획상담과 과장 김영택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는 처음 거리 노숙인들을 만나서 사정하게 되는 거리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을지로, 시청, 종로, 서대문 지역에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통해서 시설연계, 병원서비스, 주거지원 및 취업까지 알선하는 서비스를 1년 365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짧지 않은 거리 상담의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 기존의 노숙인분들에 대한 상담 및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도 물론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노숙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신규노숙인의 연계서비스의 중요함이다. 자타의 문제로 노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노숙인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자활시설이나 취업연계로 탈노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여 만성 노숙인이 되기 전, 다시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14년 여름 현00(56세)씨의 경우 수십년 일본에서 생활하던 중 가족과 헤어져 귀국하여 노숙 수 일만에 상담하게 되었다. 이후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고시원을 지원하여 주거지를 얻고 말소된 주민등록도 복원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복원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였고 현재 취업을 하여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하고 있다. 현모씨의 경우처럼 홀홀단신으로 고국에 귀국하여 일가 친척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지인도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노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다. 하지만 미력하나마 센터의 도움이 초기에 적절히 제공되어 만성 노숙인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규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신규 노숙인을 비롯한 만성 노숙인에게도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한 사람의 노숙인이라도 그의 가족, 이웃, 그리고 사회의 품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노력할 것이다.



# 브릿지센터 들여다보기 (2014년 1월 ~ 2014년 12월)

1월

## 김필수 기획국장 예비 인도

구세군 대한본영의 기획국장으로 부임하신 김필수 사회복지부장님의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본인의 어려웠던 과거 시절과,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경험담을 함께 이야기하시며 현재 우리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용자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방문

겨울철 거리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한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인 김병하님이 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보호 체계에 대하여 관심있게 설명 들으시고 센터 곳곳을 살펴보시며 거리 노숙인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는 금일봉도 함께 전달하시고 가셨습니다.

## 서울시 노숙인 시설 식자재업체 공동 입찰 계약

서울시에 있는 31개 노숙인 시설이 공동으로 식자재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업체 선정 결과 예코푸드 코리아, 삼성웰스토리, CJ프레시웨이 3개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이 보다 양질의 내용으로 제공될 수 있는 노력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 설 명절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명절인지라, 보고싶은 가족을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 센터의 이용자분들은 더욱 외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소외감을 줄이고자 센터에서 함께 모여 공동차례상을 준비하여 차례도 지내고 식사와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의 명절에는 모든 분들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

## 터누아 쌀 나눔행사

(주)터누아코리아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원 전무가 꽃 화환 대신 받은 드리미쌀 화환 610KG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무료급식을 통해 거리 노숙인의 따뜻한 식사로 제공됨으로서 그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3월

### 미국 대사관 직원 방문

미국 대사관의 직원분들께서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는 저희 기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기관이 설립된 취지와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들으시고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경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시설 안전점검

3월 17일 서대문구청에서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러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모든 시설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으시며 점검을 하여주시는 관계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벽화봉사단 봉사활동

신한생명 서울지역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 벽화봉사단에서 저희 기관의 벽을 예쁘게 그려주시며 토요일 한나절 내내 맘을 풀리셨습니다. 희망캔버스벽화전문단의 약 60여분의 봉사단원들이 양쪽 벽에 매달려 꼬박 힘써주신 덕분에 저희 브릿지센터의 울퉁불퉁한 벽이 매끄럽고 화사하게 변모하였습니다.



### 세스코 에어제닉 설치

하루에 약 500여분의 이용자들이 방문하여 주시는 저희 기관에서는 여러 분들께서 드나드시기 때문에 구취나 악취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분들과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방역을 맡아서 해 주고 있는 세스코의 에어제닉 방향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화장실과 침실, 프로그램실과 휴게실에서 악취 대신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 1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3월 28일 본 기관의 제 1차 정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2013년 사업 보고, 후원금 보고와 2014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2014년도 법인 이사 변경에 따른 선임 이사를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운영매뉴얼 발간

저희 센터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사업을 토대로 노숙인 복지에서 일하는 실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2014년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센터 운영을 통하여 축적된 정보를 나누고자 발간한 업무 매뉴얼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월

### 노숙인시설 시·구 합동 지도·점검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에서 시설의 사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저희 기관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늘 정해진 규칙에 맞추어 성실히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 2분기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의 건

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민주성, 투명성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2분기 정기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혹서기를 대비하여 이용자의 건강관리와 상담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8월

### 구세군 대한 본영 공항물품 후원

공항에서 통과하지 못한 여러 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배분하여 주는 후원을 대한 본영에서 받아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삼푸와 치약, 로션 등 물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늘 생활용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요긴한 후원이 되었습니다.



9월

### 추석 명절 행사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용자분들과 함께 차례상을 나누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나누어먹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윗놀이와 장기 등 이용자분들께서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민속고유의 놀이를 함께 마련하여 동료들과 함께 잠시나마 웃고 즐기는 시간이 내일을 준비하는 작은 힘이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10월



### 서울시 건강 자활체육대회

매해 노숙인들의 건강관리 및 건전한 삶의 의지를 고양하고 노숙인 자율적인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자활체육대회가 목동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구세군 연합으로 참여한 저희 기관의 참여자 여러분께서 함께 어울려 참여한 결과 줄다리기와 축구, 두 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모두가 어울려 한껏 즐기다 온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1월

###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한 발대식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동절기 노숙인 응급보호를 위한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전 직원도 발대식에 참석하여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 신입공무원 복지시설 방문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 공무원 여러분께서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알아보고자 저희 기관에 방문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정책에 대한 궁금증으로 방문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늘 시민 곁에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 직원 교육

연말을 맞이하여 직원 복무 규칙에 대하여 재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원 여러분께 성실하게 근무해야하는 근거 규정을 다시 교육하고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2014년 브릿지센터 실적보고(1월~12월)

## ● 생활지원과 ●

세부사항		14년 총계	연간목표	달성률
무료 급식	아침	93,229	83,950	111.1%
	점심	15,801	13,400	117.9%
	저녁	1,343	-	-
	소계	110,373	97,350	113.3%
편의 서비스	응급잠자리제공	23,871	23,360	102.2%
	위생도구지급	103,100	114,981	89.7%
	세탁	8,549	9,125	93.7%
	목욕	33,767	31,025	108.8%
	사물함대여	40,740	40,150	101.4%
	이·미용	1,288	1,372	93.9%
	소계	211,315	220,013	96%
의료 서비스	의료실이용	9,183	10,216	89.9%
	외부의뢰/119후송	456	498	91.6%
	상담	842	747	112.7%
	무료진료	673	805	83.6%
소계	11,154	12,266	90.9%	
주간 프로그램	영화상영	1,453	980	148.3%
	체육활동	261	366	71.3%
	영상 프로그램 (수요예배)	969	1,196	81%
	소계	2,683	2,542	105.5%

## ● 기획상담과 ●

세부사항		14년 총계	연간목표	달성률	
상담	주간	입소상담	136	9,000	100.2%
		생활상담	1,214		
		취업상담	1,245		
		의료상담	841		
		정신보건 상담	1,248		
	소계	4,684			
	야간	을지로 입구	1,975		
		시청	461		
		시의회	300		
		종각	255		
기타		1,340			
소계	4,311				
온라인상담	2				
계	9,015				

## ● 정신보건과 ●

세부사항		14년 총계	연간목표	달성률
상담	정신	813	1,000건	117.6%
	알코올	358		
	일반	5		
소계	1176			
조치	입원	95	100건	192%
	주거지원	22		
	쉼터	53		
	기타	22		
소계	192			
조치후 사례 관리	외래진료	107	200건	196%
	병원방문	110		
	주거지방문	130		
	기타	45		
소계	392			
총소계	1760	1300건	135%	

## ● 행정지원부 ●

세부사항		14년 총계	연간목표	달성률
후원 홍보	후원금	50,255,610	50,400,000	99.7%
	후원물품(건)	55	60	91.7%
	소식지발간	1	1	100%
	사진촬영	311	300	103.7%
	자원 봉사자	352	200	158.5%
교육 사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0건	-	-
	인권교육	1건		
	기타(직원교육)	1건		

## ● 취업센터 ●

세부사항		14년 총계	연간목표	달성률
알코올프로그램		4	4	100%
신용회복 프로그램		4	4	100%
찾아가는 취업상담		10	12	83.3%
주민등록복원프로그램		41	60	68.3%
단도박 프로그램		3	4	75.5%
구직상담(지속상담)		271(1,253)	338	80.1%
알선(취업연계)		498	337	147.7%
취업	상용직	69	59	116.9%
	일용직	50	57	87.7%
구인건수		133	107	124.2%
구인인원수		585	504	116%
사후관리		240	240	100%
소 계		1,908	1,726	99.97%

#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및 자원봉사 (2014.1~12)

구분	후원자(채명)
후원금	<b>개인</b> <b>정기 후원자</b> 권오현, 김기태, 김남영, 김병관, 김석준, 김영택, 김예덕, 김충영, 박지혜, 박진현, 양연경, 이성재, 이인선, 이재형, 임우식, 장금숙, 전상현, 최성진, 최영민, 태수길, 황성룡 <b>일시 후원자</b> 병하, 백기영, 오병은, 이호선, 장민석, 최세영, 최정은
	<b>단체</b> <b>정기 후원자</b> 광학건설주식회사, 명보아이엔씨, 미래상엔지니어링, 정보학원, 해피빈 <b>일시 후원자</b> 에코푸드, 인창고등학교
물품후원	구세군 대한본영, 국민권익위원회, 김성호, 상수도사업본부, 서대문푸드뱅크,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인창고등학교, 희망나눔미
자원봉사	<b>응급서비스 자원봉사(급식봉사 외)</b> 성재, 신우상, 신현우, 오다연, 장효주, 천주성, 최윤영, 최현민 <b>이미용 자원봉사</b> 세아메 미용학원, 이순란 개인봉사자 <b>의료자원봉사</b> 고려대학교 불자회, 국립의료원, 서대문보건소, 아산병원 <b>단체노력봉사</b> 금융감독원, 인창고등학교, 서울시 자원순환과 <b>자선냄비 후원 모금 봉사활동</b> 김기혁, 김민석, 김상우, 김인호, 김태현, 김희재, 나현우, 남재욱, 박도훈, 박동현, 박승훈, 박주원, 박준수, 백승협, 송현우, 양 현, 유승훈, 윤준서, 이민기, 이승엽, 이준우, 이형규, 임철호, 장경서, 장원준, 장세원, 정보영, 정진웅, 진승필, 최준희, 최현준, 함영재, 황승우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2014.1~12)

(단위 : 원)

수입		지출	
전년도 이월금	10,526,891 (예금이자 포함)	무료급식	19,738,428
		일일생활용품 구입	5,745,810
		수요 프로그램	381,500
01월 ~ 12월 후원금	44,205,610	비닐봉투 (환경 미화 및 이용자 세탁물 관리)	1,200,100
		숙박자를 위한 침실 산소발생기 임대료	642,000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자조모임	534,000
		정수기 이용 및 as 비용	313,5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6,050,000	무료진료 프로그램	221,900
		도시가스비용 납부	2,547,696
		방역 프로그램	450,000
		외부 회계 감사 비용 지출	552,320
		체육 프로그램	569,800
14년 이자 수입	16,836	시설 차량 관리	685,300
		기관 홍보 프로그램	2,530,847
		명절행사	5,476,500
소계	60,799,337	시설 운영비 (비품 구입 및 환경정리, 유관기관 회의)	4,322,492
		동절기 야간상담	11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자 반납	116
		송금수수료	7,500
		14년 잔여 이월금	14,769,528
		소계	60,799,337



## 네이버 해피빈의 콩으로 우리 모금함을 응원해주세요 !!

모금함 주소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RdonaView.nhn?rdonaNo=H000000091322>

\* 혹, 게시된 후원 내용과 금액이 다르다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내용은 모두 후원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수증 발행이 누락되신 후원자 분이 계시다면 브릿지센터 행정지원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2014년 브릿지센터 세입·세출 결산내역

(단위 : 원)

관항목	세입	관항목	세출
보조금	1,730,024,142	인건비	490,635,123
후원금	50,255,610	운영비	328,535,269
법인 전입금	14,720,000	사업비	415,554,756
		특별자활사업비	516,851,625
전년도 이월금	55,145,526	13년 잔여사업비 반환금	34,832,738
이자수입	164,130	14년 잔여 사업비	63,900,897
수입합계	1,850,309,408	지출합계	1,850,309,408

## ♥♥ 후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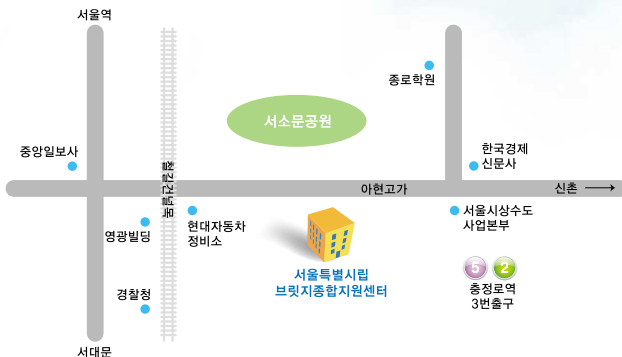
단 돈 천원에 따뜻한 한 끼가 해결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일으며 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에게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42-301566-13-103 구세군브릿지센터

▶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오시는 길



#### ▶ 버스

한국경제신문사 앞 하차 : 603, 0211, 7011, 7013, 7017  
 경찰청 앞 하차 : 701, 704, 706, 750, 751, 752, 7021, 7023, 7024

#### ▶ 지하철

2, 5호선 중정로역 3번 출구

**서울특별시립**  
**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120-030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13번지 [www.dropin.or.kr](http://www.dropin.or.kr)  
 Tel 02)363-9199, 9195 Fax 02)363-9198